

7월 9일

[USD/KRW]

USD/KRW 예상 : 1366~1376원  
NDF 증가 : 1367.70 (Swap point : -2.45, 1370.15원)

- (금일 전망) 금일 달러원 환율은 미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경계감 이어가며 제한적 상승 전망. 전일 1370.15원에 마감한 역외 달러원 환율 반영하여 금일 서울환시 달러원 환율은 1370원 부근 개장 후 상승 압력 받을 것으로 전망. 상호관세 불확실성 지속 및 원자재 관세 부과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우려 증폭은 달러원 환율에 상승 압력 가할 것으로 전망. 다만 국내 증시 외국인 주식 매수세 및 고점 인식에 따른 네고 물량은 상단을 제한할 것.
- (전일 동향) 전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 통보에 전일 증가대비 5.3원 오른 1373.10원에 개장하였으나 오름폭은 제한됨. 개장 후 1370원 부근 등락하던 달러원은 장중 코스피 상승 흐름 속 미국의 관세 서한 발송 이슈 소화하며 하락 전환함. 1365원까지 저점 확인한 뒤 레벨을 소폭 높이며 1367.90원에 정규장 마감함.

달러/원 환율 상승 요인	달러/원 환율 하락 요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호관세 여파 지속</li> <li>원자재 관세 부과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우려 증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내증시 외인 매수</li> <li>고점 인식 네고 물량</li> </ul>

[Global Market]

EUR/USD 예상 : 1.1690~1.1790  
USD/JPY 예상 : 145.60~146.60

- (USD Index) 글로벌달러는 전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추진 소식에 대한 경계감 이어가며 제한적 움직임 보이다가 97.497에 마감
- (EUR) 간밤 유로화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속 유럽은 상대적 낙관적 안도감이 강해지며 유럽증시는 상승 흐름. 전장과 비슷한 수준인 1.1753달러에 장마감함.
- (JPY) 엔화는 전일 미국의 주요국 관세 서한 발송 소식에 이틀째 달러 대비 약세 흐름 보임. 달러-엔 환율은 꾸준히 레벨을 높이며 한때 146.446엔에 고점 형성. 이후 낙폭을 줄이며 146.13엔에 장 마감함

글로벌 통화 동향

구분	증가(전일비)	재정환율(KRW)
USD Index	97.497 (-0.052)	
EUR/USD	1.1753 (+0.0021)	1608.87 (+1.94)
USD/JPY	146.13 (+0.71)	936.74 (-5.10)
USD/CNH	7.1732 (-0.0035)	190.47 (-0.04)

[Macro Analysis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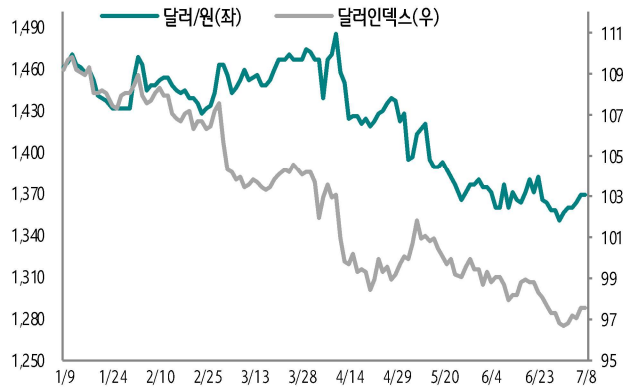
미국채 장단기 Spread(10Y-2Y) : +50.7bp (전일대비 +2.30)

-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일 트럼프의 관세 통보에 대한 경계감 이어가는 모습.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속 뉴욕 3대 증시는 보험권 움직임 보임. 다우지수는 0.37% 내린 44,240.76, S&P500은 0.07% 떨어진 6,225.52, 나스닥은 0.03% 오른 20,418.46에 마감. 미국 국채수익률은 트럼프의 구리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 관세 발언에 따른 채권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 우려 및 익일 장기물 입찰에 대한 경계감으로 장기물 중심 오름세 보이며 2년물은 3.8950%, 10년물은 4.4020%에 마감. 유가는 장초반 OPEC+의 예상을 상회한 8월 증산 계획에 약세를 보이다가 트럼프의 고율 관세 부과 예고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각되며 상승 전환.

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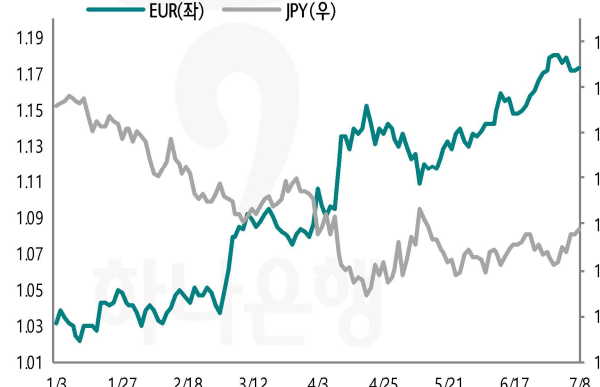
시간	내용	예상	이전
13:30	중국 CPI상승률 YoY(6월)	0.00%	-0.01%

KRW, USD Index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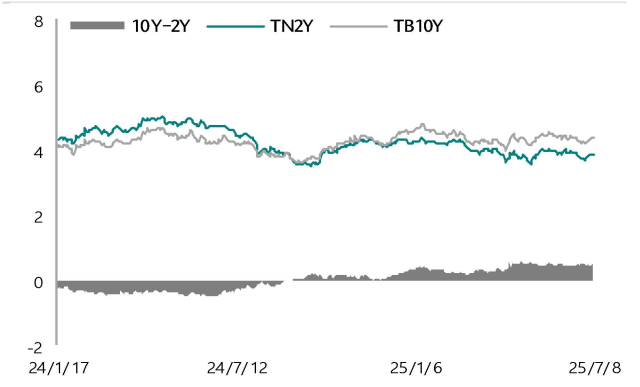
자료: 인포맥스

EUR, JPY



자료: 인포맥스

US Treasury Market



자료: 인포맥스

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,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미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경계감 지속